

가정예배 · 구역예배 교재

11

2000

충현의 만나

가정예배 · 느헤미야

· 에스더

구역예배 · 디모데전서

남성구역예배 · 시편

· 요한복음

대한예수교
장로회

충현교회

11

2000

가정예배 · 구역예배 교재

충현의 만나

가정예배 · 느헤미야
· 에스더
구역예배 · 디모데전서
남성구역예배 · 시편
· 요한복음

『충현의 만나』는
성도들의
가정예배와 구역예배를
돕기 위해
충현교회가
매달 발간하는
교재입니다

기 도 제 목

1. 우리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거하며 그 복음을 따라 행하며 전하게 하소서.
2. 우리 교회가 신령한 예배, 천국일꾼 양성,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이웃 사랑을 온전히 이루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교회가 되게 하소서.
3. 모든 교회 일꾼들이 주님의 뜻을 따라 성령 충만한 가운데 교회를 섬기게 하소서.
4. 구역예배가 살아 움직이고 이를 통해 교구가 성장하고 교회가 진정한 영적 부흥을 이루게 하소서.
5. 새벽기도회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더욱 힘있게 하시고, 5부예배를 통하여 젊은 일꾼들이 복음 안에서 바르게 양육되게 하소서.
6.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지극히 작은 자들을 돌아보는 일에 저희를 써주소서.

사랑이 열매맺는 계절에



가을이 무르익어 가는 11월입니다. 파란 하늘의 무게
구름은 상한 영혼 감싸시는 주의 옷자락 되고, 가을날의 눈부신 햇살은
그의 자비로운 눈빛 되어 교회당 높은 탑 위에 조용히 머무릅니다. 길가
에 피어난 코스모스는 잠시 이 땅에 머무르셨던 하나님의 고운 생애!

그래서일까요? 가을날엔 어느 한 곳을 쳐다보아도 그 분의 손길이 머
물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을이 깊어갈수록 주의 사랑이 우리에
게 머물렀음을 자꾸만 느낄 따름입니다.

이젠 가을이 다 지나기 전에 그분의 손길과 눈빛이 우리의 영혼을 어
루만지심으로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사랑의 송가를 부를 수 있게 해야겠
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던 그분의 사랑이 삶에 열매 맺히도록 기도해
야겠습니다. 주께서 베푸신 사랑의 열매가 이 세상 모두를 먹이고도 남을
넉넉한 생명의 양식이 되셨음을 감사하며, 그 생명의 양식이 사랑하는 중
현의 모든 성도들의 삶에 참된 부요함이 되도록 말입니다. 그러함으로 가
을날에 드릴 추수감사의 예배가 향기 되어 주께 드리지게 되는 날들을 기
대해 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
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
께 드리셨느니라”(엡5:2)

2000년 11월

위임목사 김 성 관

느헤미야 서론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즉시로 한 것이 있다면 울며 기도한 것과 금식한 것이다. 무너진 성벽으로 인해서 상한 마음을 즉시로 하나님께 향한 것이다. 어려움을 다른 사람들의 탓으로 돌리며 원망과 불신을 토하는 이들과는 매우 다른 반응을 하던 사람이었다. 그에게는 자신의 안정된 직업과 위치보다도 하나님의 일이 더 중요했고, 그것을 위해 기꺼이 자신의 특권과 안정을 포기하였다. 그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란 눈에 보이는 성벽을 재건하는 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에 관계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새롭게 회복하는 일이었다. 더욱 놀랄만한 것은 그가 이러한 일을 포로 위치에서 행하였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일은 결코 좋은 조건에서 가능하게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님을 그가 보여주었다.

그러나 느헤미야서에 나타나는 나타난 놀라운 회복이 결코 느헤미야에 의해 주도된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한다. 만일 우리가 느헤미야가 이루어놓은 결과만을 바라본다면 느헤미야서는 위인전이 되어버릴 것이다. 성경의 주인은 언제나 하나님이시며, 그가 신실한 백성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시각이 성경의 주된 핵심이다. 그러므로 느헤미야의 뒤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어야 한다. 비록 보이지 않으나 분명히 살아 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느끼실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은 우리들의 신앙의 본질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신앙의 회복과 부흥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나는 데 있다. 느헤미야의 회개의 기도는 그의 심령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회복하는 일이었으며, 백성들을 향한 촉구 역시, 죄에 대한 각성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함에 동참케 하는 일이었다. 죄에 대한 깊은

통찰과 회개 없는 참된 부흥은 없다. 하나님은 언제나 자신과 그가 속한 공동체의 죄악을 슬퍼하며 회개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공동체를 회복시키신다.

주요내용

느헤미야의 첫 번째 사역(성벽 재건)

- 1장 - 예루살렘의 상황에 대한 반응
- 2장 - 느헤미야의 현장 파악
- 3장 - 재건할 지역을 결정과 일의 분담
- 4장 - 성벽재건에 대한 반대
- 5장 - 성벽재건을 방해하는 소유층의 착취 척결
- 6장 - 방해에도 불구하고 성벽을 재건함
- 7장 - 귀환한 백성들의 상황 파악
- 8장 - 에스라의 설교와 부흥에 대한 기대
- 9장 - 금식과 회개 기도와 결속
- 10장 - 언약에 인친 자들과 그들의 맹세
- 11장 - 유다와 예루살렘의 거주자 명단
- 12장 - 제사장 명단과 성벽 봉헌

느헤미야의 두 번째 사역(종교 개혁)

- 13장 - 느헤미야의 공백에 따른 타락
 - 느헤미야의 귀국
 - 조직의 정비와 개혁

예루살렘 성벽 수축이 완공된 후에 느헤미야는 성벽을 수비하도록 조치했고(1-4절), 귀환한 백성들에 대한 인구 조사에 착수하여 각 가계별과 지역별로 통계를 내었습니다(5-69절). 이 일 후에 족장들은 많은 재산을 헌납했으며 일반 백성들도 자기들의 헌금을 모아서 드렸습니다(70-73절). 성벽 공사를 완공한 후에 인구조사를 실시했는데, 일차적인 목적은 정책적 차원에 있습니다. 정확한 인구숫자와 족보들을 파악해야만 여러 가지 행정적인 업무들을 쉽고 빠르게 처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구조사에는 영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최악으로 70년간의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한 후에 고국의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공식적인 첫 출발을 하게 되었으니, 다윗의 나라가 영원하리라는 하나님의 언약이 결코 무너지지 않고 건재함을 보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대로 아브라함과 후손들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고 축복된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다윗의 왕권이 영원할 것이라고 약속했으나 이스라엘은 수도가 함락되고 백성들은 포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지켜지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강대국의 왕의 마음을 움직이사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귀환을 하여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약속을 지키신 것입니다. 이제 성벽 공사도 끝나고 인구 조사도 끝났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다윗의 왕권이 영원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는 신앙이 가장 필요한 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무너지지 않고 건재합니다.

기도 제목 ① 인간의 최악의 한계상황은 하나님의 시작임을 알게 하소서. ②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소금과 빛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학사 겸 제사장인 에스라의 지도 아래 성경 중심의 부흥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온 백성이 광장에 모여 에스라가 율법을 낭송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에스라 휘하의 중간 지도자들은 백성들이 율법의 의미를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해석해 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율법을 깨달은 백성들 사이에서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고 참 기쁨이 흘러 넘쳤습니다. 에스라의 부흥 운동을 통하여 두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의 건축 공사 동안 외적들의 직접, 간접적 위협에 시달려 오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앙을 잃어버리지는 않았지만 그것이 부흥의 불길로 타오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아 깨달은 후에는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온 민족이 한 마음이 되어 여호수아 이후에 볼 수 없었던 진정한 의미의 초막절을 지키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고난 중에 부르짖는 신앙이 아니라 행복한 삶의 현장에서 부르짖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물론 고난받고 억압당하는 자들의 간절한 간구를 들어주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 부르짖는 것만큼의 간절함으로 생의 한가운데서, 우리의 강함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신앙이 없다면 우리의 삶에 고난이 없어질 때는 하나님을 향한 간구도 없어질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강함 가운데서, 우리의 삶의 한 가운데서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십니다.

초막절 행사는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구원 역사를 체험하는 것이다.

기도 제목 / ①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부흥운동이 일어나게 하소서. ② 김창인 원로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사 남은 생애 동안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에스라가 하나님의 율법을 백성에게 전하고 예수아를 비롯한 여러 사람들과 레위 사람들이 모두 그 처소에 서있는 백성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습니다(7절). 그들이 말씀을 가르치는 방법은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주는 것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강해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에 능력이 있으므로 그 뜻이 바로 해석될 때 그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자에게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는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왜곡됨 없이 바로 해석하여 증거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실력을 쌓아야 하는 것입니다(고전4:1, 행17:3).

유다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전할 때 그 말씀을 받은 백성들은 울며 회개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자신들이 포로가 된 것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범죄한 연고였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효과적으로 증거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유다 백성의 회개는 이제 그들이 하나님과의 언약관계를 회복할 때가 되었음을 보여줍니다(시119:27, 겔7:16). 유다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슬퍼하며 울자 에스라와 레위 인들은 백성에게 울음을 그칠 것을 명하였습니다. 그날은 주의 성일이었으므로 근심하지 말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여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비록 완악하여 범죄 하였을지라도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어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는데,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참 소망이요 기쁨이 되심을 알 수 있습니다(슥8:19, 사58:14).

죄인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바라보면 기뻐할 수 있습니다.

기도 제목 / ① 말씀의 바른전파와 죄인의 회개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② 김성관 위임목사님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의 신실한 종으로서 교회와 성도들을 더욱 잘 섬겨 나갈 수 있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유다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 그리고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율법책을 보았습니다. 그때에 읽은 말씀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칠월 절기에 초막에 거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산에 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무성한 나뭇가지를 취하여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출애굽하여 광야에 거하던 과거 조상의 생활을 체험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기억하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기억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구원자 되심과 언약을 상기하는 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레10:11, 시119:66).

모세 율법에 명한 대로 초막절을 행하는 유다 백성은 크게 즐거워했습니다. 그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다가 귀환한 자들이었으므로 그때까지 그러한 절기 행사를 체험하지 못하다가 초막절을 지킴으로써 큰 기쁨과 즐거움을 체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간접적으로나마 체험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큰 기쁨과 즐거움이 임한 것은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한 기쁨이 어떠한 것인가를 증거하여 줍니다. 초막절 행사의 핵심은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 역사를 기억시키는 것이었으므로 말씀을 통하여 보다 구체적인 초막절의 의미를 교훈하였던 것입니다. 에스라와 백성은 이와 같이 여호와와의 절기를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초막절은 하나님의 구원역사와 그에따른 큰 기쁨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기도 제목 / ①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구원의 즐거움을 체험하게 하소서. ②
충현교회가 민족 복음화를 위하여 더욱 헌신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절을 지낸 후인 칠월 이십 사일을 거국적인 대회 개시일로 정하고 율법책을 낭송하고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1-5절). 이어서 에스라의 가르침을 받는 중간 지도자적인 예수아와 갓미엘과 바니와 하삽냐 등의 레위인들이 백성들의 회개와 헌신을 대표하여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의 내용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회고하면서 언약의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언약을 성실하게 지키심을 감사하고, 이제 포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리라고 다짐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본 장에서 백성들의 대표자격인 레위인들의 기도의 내용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회고하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 주신 일들을 찬양하는 것과, 현재 이스라엘의 처지를 아뢰면서 헌신을 결단하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주시길 간구하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레위인들의 기도는 역사를 올바르게 해석한 것으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바르게 진술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신약에 이르러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통하여 완전히 실현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언약에 신실하신 성품을 닮아가야 합니다. 인간은 언약하여 하나님 앞에서 드린 결단이 수없이 무너지지만, 하나님의 언약과 무한하신 사랑에 의지하여 나 자신도 하나님과의 약속과 인간과의 약속에 신실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심판중에서도 은혜를 베푸심은 맺으신 언약과 인자를 지키심입니다.

기도 제목 / 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심을 믿게하소서. ② 교역자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귀한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01.02.11 15:00 15:00

01.02.11 15:00 15:00

본 문에서는 민족적 회개 운동기간에 레위인들의 인도에 따라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린 기도의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에사를 보좌하며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던 레위인들은 이제 백성들을 인도하여 하나님께 회개와 헌신의 기도를 세 부분으로 나누어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광야 생활에서부터 바벨론 포로생활까지의 사건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두드러지게 나타났던 배교의 사건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베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루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을 저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여 내신 긍휼하신 하나님을 보여줍니다(18-19절). 먹고 마시는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20-21절).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시고(22-24절), 정복한 땅에서 기름진 것으로 배불리 먹고 주의 큰복을 받아 누웠다는 사실을 회상하며 기도합니다(25절).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순종치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선지자들을 죽이는 죄를 저질렀음을 다시 상기시킵니다(26절).

본문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인도와 섭리, 그리고 땅을 선물로 주신 일을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대조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드러내 주고 그들로 돌이키기 위해 율법을 주셨지만, 그들은 등돌리며 무시했고, 그분의 말씀에 복종하도록 선지자까지 보냈지만 선지자를 죽였던 강박한 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하는 그의 백성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십니다

기도 제목 / ① 회개의 영을 주소서. ② 당회원들이 성령 충만하여 교회를 온전히 섬기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계속되는 느헤미야의 기도는 죄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며, 그분이 대적을 일으켜 곤고를 당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역사적으로 회상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낙심되어 울부짖으면 하늘에서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긍휼을 베푸십니다. 그들의 공로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자비하심을 따라,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허락하십니다(27-29절). 비록 그들이 “주의 계명”을 범하고 선지자들의 경계를 듣지 아니하므로 포로로 잡혀가도록 허락하셨지만, 주는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도 아니하신 것입니다(30-31절). 이어서 레위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모든 치리가 공의로웠음을 시인합니다(33절). 아울러 그들은 그들의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열조가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악한 행위를 돌이키지 아니한 일을 자백합니다(34-36절). 이제 과거의 불순종의 모든 불행한 결과들을 마음 깊이 새기며, “견고한 언약”을 세우고는 그것을 기록하고 인을 쳤습니다. 곧 모든 이방인들과 분리되어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의 뜻을 충성스럽게 행하리라고 서약했던 것입니다(37-38절).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심이 진실했다는 것은 아무도 의심할 수 없었으나, 인간의 연약함을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은혜 대신 인간의 신실성에 기초한다면 영원한 축복에 대한 소망은 물거품이 되고 말 것임을 보여 줄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아니고서는 실패한 인간이 소망할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며 변치않으시고 지키십니다.

기도 제목 / 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소서. ② 예배를 수종드는 예배위원, 성례위원, 안내위원, 헌금위원들의 헌신을 기뻐 받아 주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백성들은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겠다고 언약을 하고서 그것을 기록으로 만들고 거기에 서명을 하였습니다. 그 서명한 사람들의 이름이 본문에 길게 나열되었습니다(1-27절). 그것은 중대하고 준엄하고 명확히 정해진 일이었으며 아울러 실행하고자 하는 단호한 결심이 선행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들이 서약하기로 결심한 일들이 무엇이었던지 주의 깊게 살펴보십시오. 첫째는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겠다는 것입니다(29절). 둘째는 서로 다른 멍에를 지는 일이 없도록 이방인과 분리를 유지하는 것이었습니다(30절). 셋째는 이방인들의 방종한 풍습을 버리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었습니다(31절). 넷째는 7년마다 땅을 쉬게 하고, 형제의 모든 빚을 탕감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섯째는 처음 소산을 하나님께 십일조로 드리겠다는 것입니다(35-37절).

이러한 서약 속에서 우리를 위한 값진 교훈은 오늘날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고 진리의 길에서 떠나는 이유는 영적인 무감각과,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현재의 문제점을 진지하게 직면할 마음이 결여돼 있는데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분리되지 못하고 세상과 깊이 짝하고 있으면서 단지 교회적으로만 분리돼 있다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되고 있고 진리가 거부되고 있는 이 시대속에서 성도들은 악한 요소들을 영원히 제거하고 서로 마음과 마음을 같이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을 기다리며 주님의 진리를 위해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결단합시다

기도 제목 / ①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소서. ② 교회 직원들이 선한 청지기로서 맡은바 모든 일에 충성을 다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본문에서는 느헤미야 7장1-5절, 특히 4절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7장4절에서는 예루살렘의 정착한 인구가 희박한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당시 느헤미야는 귀환한 자들의 족보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느7:6-72). 느헤미야 11장에 와서야 실시한 인구조사 목록에 따라 예루살렘에 살 사람을 제비뽑아 새 성벽을 건설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유다 땅으로 이주한 지도 얼마 안되는 상황에서 다시 그 성으로 이주한다는 것은 딸린 식구들과 생활 터전을 고려할 때 쉬운일이 아니었으나, 그들은 제비뽑아 결정된 사항에 기꺼이 순종했습니다(1-2).

3-19절까지는 성벽이 재건된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될 거민의 명단과 숫자가 그 이주 과정이 생략된 채 본문에 언급되고 있는데,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드리는 예배의 중요성을 자각한 백성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유다지파, 베냐민지파, 제사장들, 레위인들을 먼저 언급하므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전의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이들의 헌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네 부류의 사람들 중에서 제사장들의 숫자가 1,192명으로 가장 많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예루살렘 성이 영적인 중심지로서 하나님의 도성을 예표하는 그림자인 것이다.

결국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도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택함을 받은 성도라야 하며, 또한 자원하는 신앙의 열정을 가진 성도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충성하는 자라야 할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헌신합니다

기도 제목 / ① 영원한 주의 나라를 소망케 하소서. ② 교회 일꾼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 각자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예루살렘 성벽 완성 후, 예루살렘 성에 거주하도록 선정된 백성들의 명단과 숫자를 언급하고 있는 앞 단락에 이어서, 본문은 예루살렘 거민 이외의 백성들이 거주한 성읍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유다 자손들이 주로 거주하던 남쪽지역의 성읍들을 열거하는 내용(25-30절)과, 베냐민 자손들이 주로 거주하던 북쪽 지역의 성읍들을 열거하는 내용으로 구분되었습니다.

한편 이곳에서 느헤미야는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복시대의 지명들을 사용하였습니다. 이는 그가 예루살렘 성벽 재건과 거주지 확보를 통해 이스라엘이 일부나마 현실적 선민국가 회복을 하는데 그치지 않고, 다윗 왕국의 영화까지 회복하며, 다윗시대의 가나안 땅을 완전 회복하기를 소망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은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힘껏 충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모두가 예루살렘 성안에 거주하지 않고 나뉘어 각자가 거주할 수 있는 성읍들 속에서, 한결같은 언약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 성도들 역시 각자가 처한 환경과 여건이 다를지라도 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충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기도 제목 / ① 주님의 뜻이 가장 우선순위가 되게 하소서. ② 교회의 모든 위원회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업을 전개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예루살렘 성벽이 완공된 후에 제1차 귀환자들의 실태를 조사하여 (느7장) 백성들을 예루살렘과 각 성읍에 재배치한 바 있는(느11장) 느헤미야는 이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명단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가 이러한 조처를 취한 이유는 제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던 성전 제사제도를 정비하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또한 그는 성벽 봉헌식을 거행하기에, 우선 그 봉헌식을 담당할 자를 확인하고 종교적으로 준비시키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여기 기록된 명단 중에 두 사람(예수아, 갓미엘)은 제 1차로 돌아온 자들입니다. 여기서는 두 찬양대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사실인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성전봉헌식을 담당할 자를 준비하기 위하여 이름을 나열하고 제시할 정도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를 준비하였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돌아보기 바랍니다. 얼마나 준비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구원 계시가 더욱 풍부하게 나타난 신약시대에는 찬양대 뿐 아니라 구원받은 모든 신자들이 마음으로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찬송해야 됩니다(엡 5:19 참조). 주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준비된 예배를 드리기 바랍니다.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기 바랍니다.

주님은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기도 제목 / ① 내 평생 주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② 찬양대원들이 마음 중심에서 나오는 영적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본 문은 대제사장 요아김때의 제사장 명단(12-21절)과 레위 족장들의 계보와 역할(22-26절)등으로 나누어집니다. 이처럼 느헤미야가 종교인들의 명단을 자세히 기록한 것은 느헤미야의 관심이 성전제사제도의 회복을 위함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이 다시 구속사의 주역으로서 자격을 회복하는 것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능하고 전능하고 신실한 일꾼이 일생을 끝마치게 되면 그 뒤를 이어서 충성할 수 있는 새로운 일꾼을 세우십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 확장의 사역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 여호수아가 세움을 입었고 엘리야의 뒤를 이어 엘리사가 세움을 입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 직분 역시 바벨론의 포로 기간 중에도 단절되지 않고 계승할 수 있도록 만드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충성 되이 여겨 직분을 맡기셨다는 사실에 감사하십시오. 성도들의 헌신과 충성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가 세워집니다. 나를 구원하여 주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죽도록 충성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충성하는 자들의 이름은 영원히 기억됩니다.

기도 제목 / ① 맡은 직분을 잘 감당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② 교회 학교 교사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천국일꾼 양성에 더욱 헌신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우대 백성들의 영적 상태 역시 다듬어 지게되었기에 예루살렘 성벽의 낙성식을 거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은 그들의 몸과 백성, 성을 모두 정결케 하는 것입니다(30절). 인간은 다 죄인이므로 하나님을 위하여 무슨 일을 하려 할 때마다 먼저 정화의 순서를 거쳐야 합니다.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드리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을 거룩하게 하며 성결하게 해야 합니다. 성결은 인간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정결 예식이 끝난 후 예루살렘 성곽 봉헌식이 향렬과 찬송으로 실행된 사실을 말해줍니다.(31절) 이것은 성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였습니다. 또한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성전으로 들어가서 큰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며 낙성식을 마무리하였습니다(43절).

이때 봉헌식으로 말미암은 이스라엘의 즐거움은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에게만 있는 신령한 기쁨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몸과 마음을 온전히 바쳐서 헌신할 때 우리는 큰 기쁨과 만족을 누리게 됩니다.

오직 주님으로만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기도 제목 / ① 천국의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② 각 교구가 기도와 말씀과 사랑으로 하나되어 날로 더욱 부흥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예루살렘 성벽의 낙성식을 거행함으로서 큰 기쁨을 누리게 된 유대 백성들은 자신들의 맹세를 실천하게 됩니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위해 온전한 십일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자신들이 하나님께 맹세한 것입니다(느10장). 예루살렘 성벽의 완공과 영적 부흥 운동을 통해서 언약 공동체의 일원답게 살아가기를 맹세한 유대 백성들로서는 십일조 제도를 율법에 따라 온전한 십일조를 바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은 자기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 충성해야 합니다.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즐거워하게 된 것은 저희가 제각기 맡은 바 직무에 충실하였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은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여 충성할 때 큰 기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성도들은 온전한 십일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십일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 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십일조를 통해 그들의 공동체가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준비되고 구별된 예물을 드리고 있습니까? 이것은 얻은 소득의 제공자가 하나님임을 고백과 감사인 것입니다. 또한 재물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믿음을 가지기 바랍니다. 성도의 드린 헌금을 통하여 교회가 세워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됩니다.

주님께 감사함으로 준비된 예물을 드릴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 제목 / ① 항상 감사하는 생활이 되기 바랍니다. ② 남녀전도회가 복음 전파의 사명을 다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이 방인들과의 관계를 청산하고 그들을 내어쫓는 모습을 통해서 선민으로서의 순수성을 회복하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성도들의 믿음과 삶 속에는 불의하고 죄악된 요소가 철저하게 제거되고 있음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간과하기 쉬운 죄악의 요소를 빠짐없이 분별하는 지혜와 단호히 제거하는 용기를 동시에 지녀야 할 것입니다.

4절부터 이어지는 본문은 느헤미아가 바사왕국으로 돌아간 후에 발생한 사건과 다시 귀국한 느헤미아가 이에 대해 취한 조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도비야와 산발랏, 엘리아십의 불의한 모습을 보고 느헤미야는 성전정화운동을 벌인 것입니다. 제사장 엘리아십은 자신의 직권을 남용하여 성전을 모독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신 은사와 축복이 있습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사용되어야 합니다. 결코 불의한 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안됩니다.

또한 불의에 대한 조치는 즉각적이고 철저해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도비야의 악행을 전해 듣자 지체하지 않고 성전정화운동을 벌였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죄악에 대해 머뭇거리며 단호하지 못하다면 사단은 우리를 악의 도구로 사용할 것입니다.

즉각적으로 단호하게 죄를 물리치기 바랍니다.

기도 제목 / ① 죄된 나의 모습을 회개하게 하옵소서. ② 이 나라에서 모든 불의와 부패를 소멸시키시어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 개혁의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레위인들과 노래하는 자 등, 성전 봉사자들이 자기의 직분을 저버리게 된 것을 시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성수하지 않는 이스라엘을 개혁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타락한 모습을 살펴보면 그들이 아무런 문제 의식을 느끼고 있지 않을 때, 어느새 하나님께로부터 떠나 인간적인 모습으로 변질된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레위 사람이 그들의 직무를 떠나는 모습을 살펴보면 작은 문제에서 점점 더 큰 문제로, 그리고 고질적인 문제로 발전됩니다. 무슨 연유에서인지 레위 사람이 받을 것(급료)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때 레위인들은 더욱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며 일하기보다는 그들의 생계를 위해서 전도를 경작했습니다. 그러자 더욱더 급료를 줄 필요가 없어졌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일조를 바칠 이유도 찾지 못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성전의 일이 등한시되고, 성도들의 신앙은 형식적인 것에 그쳤습니다. 타락이 복합적으로 일어나는 것처럼 개혁도 상충작용을 받아야 합니다.

안식일의 문제도 그들 가운데 들어온 이방인들에게서 시작된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점점 더 심각해지게 되었고 유다 사람들까지 이방인을 본받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타락도 처음에는 하찮은 것에 대한 타협으로 시작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을 먼저 고려하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개혁이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기도 제목 / ① 우리 삶 속에서 타락한 부분들을 깨닫고 개혁하게 하옵소서. ②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심정으로 국정에 임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ㄴ 헤미야의 마지막 개혁은 혼인을 통하여 유다에 들어온 이방 여인들을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그의 택하신 백성들에게 이방 여인을 취하여 아내로 삼아서는 안된다고 경고하셨습니다(신7:3). 왜냐하면 이방 여인들이 이스라엘 남자들과 그 자녀들로 하여금 여호와를 떠나 다른 신을 섬기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신7:4).

그러나 유다 사람들은 이방 여인들과 연합함으로써 그들 자신을 강하고 부요하게 하려는 욕심 때문에 이방 혼인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는 이방 여인에게서 난 자녀들이 조국의 말조차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도 “유다는 여호와의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 신의 딸과 결혼하였다”고 책망합니다(말2:11). 어쩌면 유다 백성들은 그들이 이방 여인과 결혼한다 하더라도 자기들의 성결을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의 왕 솔로몬에게도 이방 여인은 죄의 원인이 되었습니다(26절). 그러므로 선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그들을 책망할 뿐 아니라 이방 여인들을 돌려보내게 합니다. 또 그들로 하여금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않겠다고 맹세하게 합니다(25절). 또한 제사장 가문에 대하여는 특별한 주의를 기울였으며,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서도 그 여인을 돌려보내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요야다의 아들을 내어쫓았습니다.

우리를 범죄케 하는 것들은 제거되어야 합니다.

기도 제목 / ① 죄악은 조그마한 것이라도 단호히 제거케 하소서. ② 이 사회가 장애인들을 이해하고 도와 주며 함께 사는 법을 깨닫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에게 관심을 두고 기록하였습니다. 이와 달리 에스더서는 유대 땅으로 돌아오지 않고 흩어져 있는 선민들을 보살피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줍니다. 유다 민족을 포로로 끌고 간 바벨론이 멸망하고 바사(페르시아, BC539-332)가 제국을 이루었을 때, 바사 왕 고레스는 포로로 잡혀 와있는 유다 민족에게 본국으로 돌아가도록 허락하였습니다(스1:1-2).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지만 이미 이방 땅에서 일궈놓은 삶의 터전을 잃고싶지 않은 사람들은 귀환을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보살피 주십니다.

아하수어로 왕은 인도에서 구스(에티오피아)까지 127도를 다스리는 왕으로서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180일동안 계속된 잔치는 매우 화려하고 웅장했으며 질서가 있었습니다. 억지로 술을 권하는 무례를 범하지도 않았습니다(8절). 이때 주홍이 일어난 왕은 왕후를 초대하였으나 왕후는 거절을 합니다. 여자가 대중에게 보이는 것은 바사 풍습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하물며 취한 신하들 앞에 미모를 뽐내는 일은 왕후의 덕성을 훼손하는 일입니다. 왕의 잘못된 명령입니다. 그러나 왕의 명령이 있었다면 그것을 순종하지 않는 것도 잘못입니다. 왕을 굴욕스럽게 한 것입니다. 이러한 인간의 실수의 연속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을 진행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이 협력하여 선이 되게 하십니다.

기도 제목 / ① 나의 연약함 가운데서도 주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소서. ② 이 민족이 지금과 같은 위기의 때에 바른 회개를 함으로 영과 육이 다시 사는 복을 누리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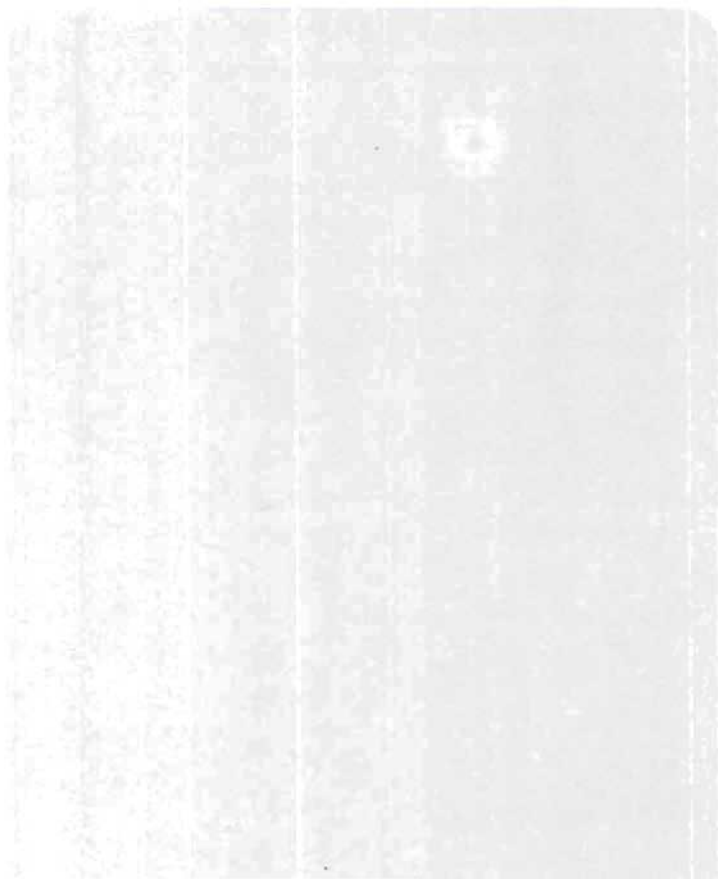
아하수에로 왕은 왕후 와스디가 초대를 거절하자 몹시 진노하였습니다. 왕의 마음속에는 왕후를 향한 미움이 가득하였습니다. 혼자서 독단적으로 왕후를 징계하여도 될 것입니다. 그러나 왕은 공식적으로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박사들에게 이 일에 대한 규례를 묻습니다(15절). 므무간이라는 박사는 이미 왕의 기색을 살피고(14절), 왕이 원하는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왕이 스스로 말하지 못하는 그것을 왕과 방백 앞에서(16절) 대변함으로써 왕후 폐위의 명분을 주는 것입니다. 그 명분은 왕후의 행위를 용납하면 온 나라의 부녀들이 왕후를 본받아 남편을 무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왕은 조서를 내려 공식적이고도 분명하게 왕후를 폐위하고 남편의 권위를 세우게 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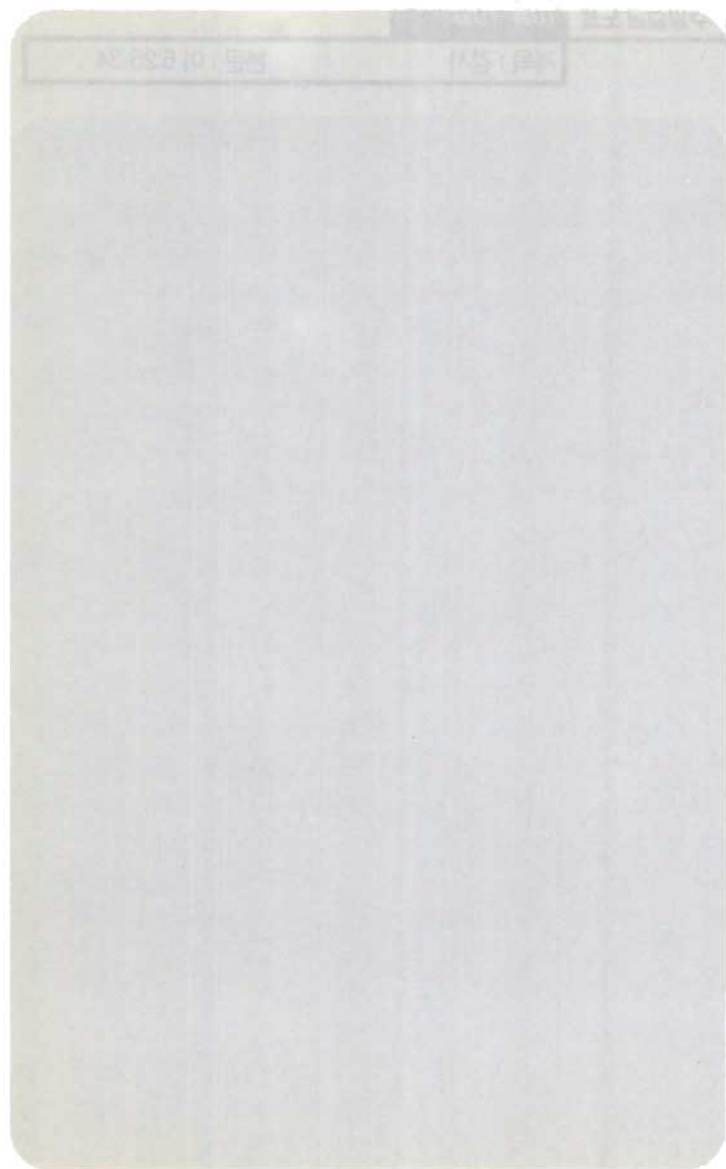
하나님께서서는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질투, 음모, 체면, 명분, 자존심과 같은 것들을 통하여서도 그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인간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인간 자신의 계획과 추진인 것 같지만 그 일을 통해서 에스더가 왕후의 면류관을 쓰게 되는 길을 열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왕의 불편한 심기를 누그러뜨리기 위한 인간의 말을 통해서도 성경의 진리를 가르쳐 주시기도 합니다. “아내는 남편을 경외해야 한다”(엡 5:33, 뱀전3:1)는 성경의 가르침은 므무간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의 삶 속에 항상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기도 제목 / ①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소서. ② 이준교 선교사(이집트)와 안석렬 선교사(수리남)의 현지사역이 더욱 알차지고 확장되도록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와스더는 그의 교만 때문에 높은 신분에서 비천하게 되었습니다. 에스더는 그의 겸손 때문에 낮은 신분에서 존귀케 되었습니다. 왕은 시간이 지나면서 격분한 마음이 가라앉자 그 동안에 되어진 일들에 대하여서 회한을 가지게 되었습니다(1절). 이러한 심경의 변화를 눈치챈 신하들은 혹시라도 와스더에 대한 연민의 정을 가진 왕이 그녀를 복위시키기라도 한다면 엄청난 보복이 있을 것을 염려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왕후를 간택할 것을 제안합니다. 왕은 그 말을 선히 여겨서 대대적인 왕후 간택을 위한 준비를 하게되었습니다.

에스더는 포로의 자손들 중의 한 사람으로서 부모는 죽고 사촌인 모르드개의 손에 의해 양육되었습니다. 정략적인 결혼의 대상이 되기에 전혀 합당치 않은 신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용모는 곱고 아름다웠으며,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녀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녀를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 준비시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인간들은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죄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를 준비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롬5:8).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입니다.

기도 제목 / ①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깨닫게 하소서. ② 정은희 선교사(수단)와 허용구 선교사(르완다)가 현지에 적응 잘하며 뿌리를 내리도록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아하수어로 왕의 아내 와스디가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자기 고집대로 하다가 왕후라는 직함을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왕후를 물색하는데 전국 각지에서 많은 후보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이런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본토인도 아니고 아는 사람도 많지 않는 에스더가 왕후가 되었고, 그녀는 이스라엘을 위기에서 구하게 됩니다.

전국에 많은 미녀들이 모여서 치열하게 경쟁을 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아름답게 보이려고 최선을 다하여 화장을 하는데 주력합니다(12절). 그리고 여자가 왕에게 나아가려고 구하는 것은 다 준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정한 내시 외에는 아무 것도 구하지 않았습니다(15절). 에스더는 꾸미지도 아니하고 만들지도 아니했습니다. 그런데 노력이나 경쟁에 관계없이 에스더는 왕의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는 자들도 안 되는데 에스더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뜻으로 된 것입니다. 배경도 없었는데 방백들도 도와줍니다. 4절을 보십시오.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로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후를 삼으소서. 왕이 그 말을 선히 여겨 그대로 행하니라” 고 했습니다. 화장이나 꾸미는 것, 그리고 구하는 것도 없이 그냥 평범하게 있어도 방백도 그의 편이 되어 주었고, 왕의 눈도 에스더를 가장 아름답게 본 것입니다. 아무리 경쟁이 치열하고, 사람이 아무리 포장을 하고 방법을 동원하더라도 하나님 뜻대로 됩니다. 인간의 노력이나 방법보다는 하나님의 은혜가 앞섭니다.

사람의 노력이나 방법보다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큼니다

기도 제목 / ①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소서. ② 이수경, 오경진, 한정은 평신도 단기선교사들(수리남)이 건강하고 원주민교회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왕 후 자리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에스더는 왕후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 이었습니다. 놀라운 은혜의 역사입니다.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욱 사랑함으로 저가 모든 처녀보다 왕의 앞에 더욱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 머리에 면류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후를 삼은 후에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방백과 신복을 향응하고 또 각 도의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풍부함에 따라 크게 상주니라”(17절). 이런 말씀의 역사는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면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렇게 아하수어로 왕의 마음에 흡족하게 여겨질 수 있었을까요? 물론 에스더는 타고난 용모가 있었고 아름다움이 있다고 했습니다(7절). 그러나 그녀는 부모도 없었고 뒤를 보아 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왕후가 된 것은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아무리 아름답다고 해도 전국에서 미녀들이 다 모였는데 에스더보다 더 아름다운 처녀가 없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왕후가 되게 하심은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악한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준비 작업이었습니다. 요셉을 애굽으로 팔려가게 한 것은 나중에 그의 부모형제를 살리시려 준비하신 일인 것입니다. 이 모두가 하나님의 섭리 하에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섭리를 이루시기 위해 인간사를 주관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자신의 섭리를 이루어 가십니다

기도 제목 / ① 하나님의 섭리에 순응하게 하소서. ② 권영일, 박수인 평신도 단기선교사(수단)이 원주민 교회 사역, 신학교 및 아랍어학교 사역을 잘 감당하고 컴퓨터학교 사역 준비가 잘 이루어지도록.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우리는 너무나 많은 부분에서 타협하고 살고 있습니다. 융화와 화목의 명목아래서 죄와 불의와 타협하고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양보의 미덕과는 다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신앙적인 것에 있어서 절대로 타협이나 양보가 없어야겠습니다. 본문에 모르드개가 하만에게 타협하여 절하지 않았습니 다. 죽음을 불사하고 신앙을 굽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좁은 소견으로 생각할 때 사람에게 인사하는 것은 예의이고, 우상을 섬기지 않으면 되지 않느냐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마치 신사참배와도 같은 것입니다. 하만이란 이름의 뜻은 '엘람의 신'이란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하만에게 절하는 것은 분명 우상 숭배였습니다. 그리고 교만한 자에게 절대로 절할 수 없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습니다(5-8절). 교만한 자에게 절하면 더욱 교만하게 되어서 우상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교만한 자와 타협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만한 자가 하만처럼 우리를 죽이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 타협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뇌물을 주는 자에게는 절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9-11절). 하만은 뇌물로 자신의 뜻을 관철시켰습니다. 청탁을 하는 사람도 받아주는 사람도 모두 잘못입니다. 우리는 고전5:9-11과 눅17:3-4절을 통해서 뇌물을 주는 자에게 절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도 모르드개 같이 절대로 굽히지 않는 신앙을 가집시다. 자신의 신앙에 타협이 없나 돌아보고 회개합시다.

신앙에는 타협이 없습니다

기도 제목 / ① 타협하지 않는 신앙을 주소서. ② 성도들이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소금과 빛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하만은 너무나 주도면밀한 사람입니다. 계획에 철저한 사람입니다. 목적을 가지고 계획을 세우고, 날짜를 잡고 지혜의 방법으로 추진해가며 희생까지 감수합니다. 단계적으로 목적을 관철 시켜갑니다. 왕을 속이고 대신들을 속이고 백성들을 속입니다. 힘을 연습니다. 나라의 모든 대신들과 방백들의 힘까지 이용을 해서 계획을 차곡차곡 진행해 나갑니다. 계획의 실수가 있을까해서 확인하고 변경하면서 진행해 갑니다. 드디어 자신의 모든 것이 이루어질 목전에 이르렀습니다. 만반의 준비가 끝났습니다. 너무나 주도면밀하고 완벽했습니다. 이처럼 악인의 계획은 언제나 주도면밀합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바꾸어 자신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악한 하만은 멸망을 당하게 되었고, 하만이 멸하려던 유대인은 축제의 날이 되었습니다. 악한자의 뜻을 바꾸어 자신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는 멋진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과 함께 하시며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그렇지 앎음이여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의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시1:4-6).

하나님은 악한 계획을 바꾸어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기도 제목 / ① 주님! 내 생각 내 뜻 버릴 수 있게 하소서. ② 이순주 평신도 단기선 교사(우간다)와 추진희 평신도 단기선교사(스리랑카)가 영육이 강건하고 현지 사역 잘 감당하도록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하만 계획으로 온 유대인은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국가적으로 죽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런 위기의 때에 어떻게 해야 위기를 슬기롭게 넘길 수 있겠습니까? 본문에서 지혜를 얻기를 바랍니다.

첫째, 국민전체가 회개했습니다(1-3절). 위기를 느끼면 먼저 회개할 줄 알아야 합니다. 모르드개를 보십시오. 가장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 태도에서 우리는 지혜를 얻어 개인과 가정과 국가에 위기를 느낄 때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둘째, 혼자 살겠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13-14절). 위기가 있으면 자신만 살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나 혼자만 살겠다고 할 때, 가정과 국가와 내가 속한 어떤 조직이 어렵게 됩니다. 에스더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뜻은 민족 전체를 살리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은 우리 자신만 구원시키려는 것이 아니고, 우리로 통하여 많은 영혼을 살리려는 뜻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 혼자만의 생각을 버리고 나로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셋째는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16-17절). 위기가 왔을 때, 자신을 희생하는 한 알의 밀알이 되겠다는 믿음을 가질 때 위기는 극복됩니다. 사람이 살다보면 어려움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혼자만 살겠다는 생각을 버리면 위기는 극복됩니다. 한 알의 밀알들이 되어 위기를 극복하는 믿음의 장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위기를 만나면 먼저 하나님께 회개하고 도움을 구하십시오

기도 제목 / ① 때마다 회개를 주시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게 하소서. ② 평신도 선교사들(일본의 유병석, 리비아의 이병석)과 협력선교사들(수단의 강기엽, 이집트의 허요셉)이 지속적으로 일하며 구체적인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민족의 현실을 모르드개를 통해 들으면서도 에스더는 나서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바사의 법에는 누구든지(그가 왕후일지라도) 왕의 부름을 받지 않고 궁궐 안뜰로 들어가 왕에게 나아가면 죽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현재 에스더는 30일을 왕에게 부름을 받지 못한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다만 한가지 방법이 있는데, 왕이 왕권의 상징인 금홀을 내어 민다면 왕의 특별한 은총으로 죽음을 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한 달을 부름받지 못한 에스더에게 그것이 가능한 일일까요? 모르드개는 염려하는 에스더에게 독려의 말을 합니다. “이 일을 너 홀로 면할 것이라고 생각지 말라”(13절). 과거 왕후 와스디가 폐위된 것을 상기시키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네가 만일 잠잠하면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사용하실 것이고 너와 너의 아비 집은 망할 것이다”(14절). 모르드개는 하나님 주권 신앙이 있었습니다. 에스더가 왕에게 가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법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네가 왕후가 된 것은 이 때를 위함일 수 있다”(14절). 고아 출신의 에스더가 가장 강한 나라의 왕비가 된 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나 있을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모르드개의 격려에 에스더는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부탁의 말을 합니다. “나를 위하여 밤낮 삼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금식 기도를 해 주십시오. 나도 그렇게 금식하고 왕에게 나아가겠습니다. 죽으면 죽을 것입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는 것입니다.

기도 제목 / ① 모든 일을 하나님 손에 있다는 믿음을 주옵소서. ② LMTC(평신도 선교훈련원)의 교육을 통해 더 많은 평신도선교사들이 양성되도록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제 삼일에” 에스더가 모든 금식을 마치고 이제 왕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생과 사의 결정의 시간입니다. 무엇보다도 믿음이 요구되는 시간입니다. 왕이 드디어 에스더를 보았습니다. ‘보다’에 사용된 ‘라아’라는 단어는 주목하여 자세히 보는 것을 뜻합니다. 심히 사랑스러웠습니다. 금홀을 내어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너무도 더러운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모든 왕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갈 때 우리를 받아 주시고 금홀을 내밀어 주시는 것입니다.

왕이 에스더에게 소원을 물었습니다(3절). 왕도 왕의 명 없이 안뜰로 나오면 죽으리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생명을 걸 만한 무엇인가가 있을 것이라고 짐작했을 것입니다. 왕은 에스더가 너무 사랑스러워 무엇이라도 줄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당장 자신의 소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식사에 왕과 하만을 초대합니다. 그녀는 왕이 얼마나 변덕스러운 인물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절대 권력을 휘두르는 자이기에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이리 바꾸고 저리 바꿉니다. 에스더는 잔치에 한번 더 왕과 하만을 초대합니다.

에스더는 어떻게 이 일들을 진행시키고 있습니까? 왜 그는 자꾸 식사에 왕과 하만을 초대하는 것일까요? 에스더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받았습니다. 마치 솔로몬이 받았던 것처럼. 기도는 우리에게 갈 방향을 보여 줍니다.

위기 중에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기도 제목 / ① 어려울 때 주님의 뜻을 찾게 하옵소서. ② 북한에 있는 성도들이 신앙의 용기를 잃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하만은 기쁨이 넘칩니다. 왜냐하면 왕과 자신만이 왕비의 초대를 받았던 것입니다(12절). 그런데 나오다가 모르드개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모르드개는 일어나지도 않고 움직이지도 않는 것입니다. 모르드개는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 외에는 어떤 것에도 절하지 않는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는 하만에게 결코 절하지 않았습니다(3:2) 기분이 좋았던 하만은 이런 모르드개의 모습에 심히 노했습니다. 여기서 '노하다'라는 단어는 '온 몸이 분노로 끓어올랐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는 더욱 모르드개와 유대인들을 죽이려는 자신의 계획을 실행할 것을 결단했을 것입니다.

모르드개의 불쾌한 행동에 대한 분노를 참고 집에 돌아온 하만은 자랑을 하기 시작합니다. 무엇을 자랑했습니까(11-12절)? 풍성한 영광을 자랑했습니다. 즉, 자신의 엄청난 부를 자랑했다는 말입니다. 또한 자녀가 많은 것을 자랑했습니다. 하만에게는 아들만 10명이 있었습니다(9:11-14). 그리고 자신의 높은 지위를 자랑했습니다. 신하들 중에 최고의 자리에 올라간 것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름다운 왕후에게서 왕과 자신만 초대받은 것을 자랑했습니다. 다른 신하들은 하나도 초대받지 않았다는 사실에 너무도 교만해 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꽃과 같은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자랑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랑이 그리스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내일 죽을 것도 모르는 어리석은 부자와 같이 살지 맙시다.(눅12장)

기도 제목 / 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② 농어촌의 교회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날로 부흥하여 민족 복음화의 산실이 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왜 아하수어로 왕은 잠을 이루지 못했을까요? 궁중의 많은 일기 중에서 왜 하필이면 모르드개가 공로를 세운 부분을 알게 되었을까요? 하만은 왜 바로 그 시각에 왕에게 나아왔을까요? 모르드개는 하필 왜 하만에 의해 존귀케 되었을까요? 모든 것이 마치 우연의 일치인 듯이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고 말합니다.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를 70인경과 라틴 별게잇 역에서는 '하나님께서 왕의 잠을 앗아갔다'라는 설명을 첨가해 놓았다고 합니다. 세상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모르드개의 공적이 발견된 것은 에스라 2:21-23까지의 내용일 것입니다. 수년전 왕의 목숨을 구한 모르드개의 공로가 수년이 지난 후에 그 의미를 갖게 된 것입니다. 왕은 '그 밤'에 적절한 보상을 해줄 신하를 찾고 있습니다. 마침 그때 모르드개를 장대에 매다는 것을 왕에게 구하기 위해 하만이 왔습니다(4절). 모르드개를 죽이러 온 하만은 자신이 모르드개를 높이는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11절). 이미 왕은 모르드개가 유다 사람인 줄을 알고 있었습니다(10절). 아마도 왕은 하만이 죽이려고 말한 '한 민족' (3:8)이 유다 민족인지는 몰랐을 것입니다. 하만의 아내와 친구들은 하만의 패망을 예견합니다(13절). 착한 일이든 나쁜 일이든 하나님이 모르시는 일은 없습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살아 갑시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 제목 / ① 오늘도 예수를 닮은 진실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② 병든 자들이 치유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영육간에 회복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왕과 하만은 에스더가 베푼 두 번째 잔치에 참석하였습니다. 왕의 궁금정은 더해만 갑니다. 술을 마시다가 왕은 에스더에게 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주목할 단어는 왕의 이야기 속에 “곧”이라는 단어가 두 번이나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5:3과 5:6에 비해 볼 때 소청을 시행하겠다는 왕의 의지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만은 낮에 있었던 사건을 오늘 식사를 통해서 만회를 하려고 기회를 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만은 자신의 심판이 눈앞에 다가온 것도 모르고 여전히 유대 민족을 해 할 길만 찾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더가 결국 자신의 소청을 말하게 됩니다(3:4절). 그런데 그 소청은 자신과 민족의 생명을 살려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왕은 분노할 수밖에 없습니다. 심히 사랑스러운 왕비의 생명을 누가 노린다는 말입니까? 에스더의 대적이 얼마나 잔인한지 이렇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다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왕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엄청난 음모가 진행되고 있었다는 것과 그 대적이 왕후의 생명까지 노리고 있다는 말에 왕은 충격과 함께 분노를 느꼈을 것입니다. 에스더는 그 대적이 누구인지를 고발합니다. “하만이니이다”. 결국 하만은 모르드개를 죽이려고 자신이 세운 고가 오십규빗(약 23미터)이 되는 나무에 자신이 매달린 것입니다. 자신의 영광이 영원히 지속될 줄 알았던 하만의 최후입니다.

예수님이 없다면 우리에게 기다리는 것은 심판일 뿐입니다.

기도 제목 / ① 죽어가는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② 남북이 복음으로 통일되는 날을 하루속히 허락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구역예배공과

구역예배순서

찬 송	다같이
성경봉독	인도자와 교독
구역공과	인도자
기 도	인도자
주기도문	다같이

- ▶ 구역예배 소요시간은 최소한 40분 정도가 필요합니다. 인도자의 지도에 따라서 최선을 다할 때 은혜가 넘치는 구역예배가 될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서론

‘디모데전서’는 사랑하는 동역자요,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보낸 두 통의 편지 중 첫 번째 서신이다. 디모데후서, 디도서와 함께 목회서신(the Pastoral Epistles)으로 불리우는 본서는 개인적인 서신임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공적인 문제를 다룬 점에서 공적인 서신이라고 할 수 있다. 사도 바울의 저작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학자들도 있으나 교리나 내용면에서 바울의 다른 서신과 유사한 점이 현저하게 드러나고 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1차로 석방되어 동방을 여행하는 도중인 A.D. 63-65년 본서를 기록하였다. 영지주의 이단을 특별히 경계하고, 에베소 교인들을 윤리적으로 연단하며, 교회 조직의 효과적인 운용과 올바른 목회 지침을 제시해 주기 위해 기록한 이 디모데전서에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지도자인 디모데에게 교회 치리에 관한 구체적인 지침을 주고 있다. 이 때문에 이단에 대한 경계가 서신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 본서는 신학적이고 교리적이기 보다는 도덕적이고 실천적인 면이 강조되고 있다. 특히 본서는 순수한 목회 서신으로 교회 생활의 제반 문제를 다루고 있어 오늘날 교회에도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제 디모데전서를 시작으로 목회서신을 구역에서 함께 공부할 성도들이 바울을 들어 교회를 향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교훈을 밝히 깨달아 듣고 교회를 든든한 반석위에 세우는데 동참하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기를 소원한다.

디모데전서 기본구성

1:1-20	양심과 율법
2:1-15	예배 중에 취할 행동
3:1-16	지도자의 자질
4:1-16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일꾼
5:1-16	과부를 돌보는 일
5:17-25	장로들의 문제
6:1-21	부와 사회적 지위

제 1 과: 디모데전서(1)

하나님의 권속을 향한 거짓 가르침에 관한 교훈

찬 송 / 402장
읽을 말씀 / 1장
공부할 말씀 / 1:3-20

먼저 읽기

어떤 사람이 살인죄를 범하고 사형선교를 받아 감옥에 들어앉았습니다.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죄든지 회개하면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당신이 주님을 당신의 구주로 영접하면 주님의 의로움을 보시고 당신을 의롭다고 판단해 주시고 영생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이 복음을 듣고 사형수는 사람을 죽이는 잔인한 죄까지도 용서해주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게 여기면서 눈물로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여 영생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말을 들었다고 상상해 봅시다. “회개하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주님을 믿는 것은 구원의 중요한 조건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율법을 성실하게 지킨 증거가 첨가되어야 합니다. 지금은 당신에게 그것이 없으니 나중에 다시 만나서 주님을 믿고 영접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이 말을 들은 사형수가 율법을 지킬 자신이 없어서 몇일을 허비하다 사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고 생각해 봅시다. 율법의 진정한 의미를 바로 알지 못한 자가 율법의 선생되어 말씀을

전한 결과는 너무나도 절망적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다급하게 전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절망을 직감했을 것입니다. 오늘 공부를 통해서 에베소 교회의 상황과 아울러 우리의 신앙과 지식을 재확인하는 기회가 되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우를 범하지 않는 주의 일꾼이 되길 소원합니다.

함께 본문 생각하기

놀랍게도 이 편지는 대부분의 다른 사도 바울의 편지에서와는 달리 감사를 표시하는 구절 없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디모데를 대적하는 선생들에 대한 문제에 바로 주의를 기울이는데(1:3-12, 18-20), 이는 그들이 야기하는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를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 대적하는 자들이 어떠한 자들이었는가를 살피기 전에 그들은 에베소 교회 회중에 속한 사람들이었고, 디모데의 책임 아래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3절). 또한 20절의 언급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대해 어떤 지시를 할 수 있는 권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전제해야 합니다(20절).

[3절에서 11절] 율법에 관한 교훈

사도바울의 교훈을 반대하던 자들은 소위 "지식"을 가졌다고 주장하는 지식인들이었습니다(딤후전6:20). 그래서 "율법"에 근거하여 다른 사람들의 도덕적 행동을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복음의 참된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다른교훈을 가르치고(3절),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착념하며(4절), 율법의 선생이 되고자 했습니다(7절).

-
1. 사도 바울은 율법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선하게 사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합니까?

① 8절 -

2.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소유해야 할 것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① 5, 19절 -

[12절에서 17절] 바울의 간증과 사도권에 대한 변호를 통한 교훈

사도 바울은 11절에서 “영광의 복음”에 대해 언급하면서 그 자신이 어떻게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는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자신의 이야기를 간증한 것은 아무런 계획 없이 기록한 것이 아니라,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내용을 더욱 확실하게 나타내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3. 바울은 과거에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① 13절 -

4. 바울은 자신이 긍휼을 입은 이유가 무엇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① 16절 -

[18절에서 20절] 거짓 가르침에 대한 교훈

사도 바울은 고린도교회를 향해 음행하는 자들을 출교시키라고 권한 바 있습니다 (고전 5:1-5). 그는 만약 성도들의 정도에서 벗어난 행동이 공동체의 정체성이나 순결을 위협한다고 판단하면 엄하게 대처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비유와 같이 그의 사역은 영적 싸움이었습니다(딤후 2:4, 고전9:6, 엡6:10-17).

5. 바울은 양심을 버리고 믿음에 관해서 과선한 자들을 누구이며,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배교자(20절a) -

② 처리(20절b) -

③ 이유(20절c) -

6. 거짓 가르침에 대해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① 18절 -

함께 생각하며 나누기

11. 여러분은 율법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혹시 율법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지 않고 무조건 나쁜 것이거나 쓸모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아닙니까? 이 시간에 율법의 기능에 대해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율법과 은혜에 대해서도 각각 어떤 관계가 있는지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2. 사도 바울이 자신에 대해 주장하는 것은 자신이 전하는 복음 때문입니다. 그의 사도권이 인정되지 않으면, 그가 전하는 복음도 진리로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주로 무엇 때문에 주장하십니까? 복음 때문입니까, 아니면 자기 자신의 자존심 때문입니까?

3. 여러분의 주위에는 믿음을 포기한 사람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믿음을 포기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나누어 보시고, 그에 대한 성경의 대답을 나누어 보십시오.

제 2 과: 디모데전서(2)

하나님의 권속을 향한 예배와 지도자에 관한 교훈

찬 송 / 372장
읽을 말씀 / 2, 3장
공부할 말씀 / 2:1-3:13

먼저 읽기

칠혹같이 어두운 밤에 가로등이 없는 경춘가도나 고속도로를 달리다보면 익숙한 길이라고 할지라도 운전하는데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러나 멀리서 앞차의 빨간 후미등이 보이면 조금은 안정된 마음으로 그 불빛을 따라 도로의 굴곡을 판단하며 운전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이끌어 준다는 것은 참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특히 어떤 곳을 향해 나아가는 중이고, 많은 무리가 함께 동행하고 있다면 지도자의 중요성은 한층 더 부각됩니다. 보통학교시절에 반장을 뽑는 것은 그 반에서 나이가 많거나 힘이 세거나 머리가 큰 아이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국민학교 시절에는 반에서 성적이 우수한 아이들 중에서 선거로 선출을 했습니다. 요즘의 초등학교에서는 반장이 되기 위해 선거전을 펼치며 다양한 공약을 내세워 반 구성원의 마음에 흡족한 공약을 제시한 아이가 선출된다고 합니다. 교육환경이 개선되면서 초등학교

교 반의 반장 선출은 예전에 비하면 많이 까다로워졌습니다.

그러나 어른이 된 우리의 시각에서 보면 입가에 웃음을 주는 그리 대단하지 않은 방법일 것입니다. 대통령을 선출하는 대선과 비교해본다면 말이죠. 그 지도자의 위치가 중요할 수록 선출에 필요한 조건들은 매우 까다로워지기 마련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공부하면서 그 무엇보다도 까다로운 지도자의 선출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 바라보는 관점과는 전혀 다른 우리의 영적 지도자들에 관한 자격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특정의 어느 사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처럼 되기를 노력하는 지표로 삼아야 할 내용이기애 소중합니다.

함께 본문 생각하기

디모데는 바울과 그를 대적하는 자들을 잠잠하도록 해야 할뿐만 아니라, 또한 공동체의 문제도 다루어야 했습니다. 이런 문제들 중에는 말씀을 읽고, 가르치고, 선포하는 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4:13). 바울은 이 편지에서 예배 중에 취해야 할 행동에 대해서 기록했는데, 여기에는 신약에서 오늘날 현대의 기독교 여성들이 가장 모욕적으로 생각하는 구절(2:11-15)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에 대한 해석상의 문제로 인해서, 다른 부분까지도 영향을 주어서 중요한 교훈을 얻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를 야기시키는 부분을 본문이 쓰여진 역사적 배경을 통해 바르게 이해해야 하겠습니다.

[2장 1절에서 4절] 사회적인 지도자를 위한 중보 기도의 교훈

사도 바울은 사회의 지도자들을 위해서도 중보 기도할 것을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사회에 참여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도 구원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더욱 강조하고 있습니다.

1.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권세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와 가치는 무엇입니까?

① 2절(이유) -

② 3절(가치) -

2. 사도 바울은 구원에 얻기 위해 알아야 할 진리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① 5절 -

② 6절 -

[2장 8절에서 15절] 예배에 있어서 여성에 관한 교훈

사도 바울은 당시 남자와 여자가 교회에서 취할 행동에 대해 교훈을 주었습니다. 남자에게 권고를 한 사도 바울은 여자들에게 주는 첫 번째 권고를 시작하면서 "또 이와 같이"라는 말을 사용하면서 남자에게 주는 권고와 연관을 짓고 있습니다(2:9-10). 이것은 남자와 여자에게 주는 권고가 비슷하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3. 에베소 교회의 여자들에게 요구되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① 9절 -

② 10절 -

4. 바울은 교회 안에서 여성의 가르치는 지도자 역할에 대해 어떻게 말합니까?

① 11절 -

② 12절 -

[3장 1절에서 16절] 지도자의 자질에 관한 교훈

사도 바울은 교회의 지도자를 말하면서 그들이 무엇을 행해야 하느냐가 아니라, 그들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감독의 자질로서 무엇보다도 도덕적 성품과 관리자로서의 능력을 강조한 것은 매우 인상적입니다. 또한 집사의 자질에서도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결백한 것이 영적 은사를 가진 것보다도 더 우선이 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언급하는 지도자의 자질에 관한 교훈은 당시 디모데가 섬기고 있던 교회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율법의 선생이 되려는 자들의 문제와 아울러 지도력의 심각한 위기에 처해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5. 감독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지 정리해 보십시오.

① 1-7절 -

6. 집사는 어떤 사람이어야 합니까?

① 8-13절 -

함께 생각하며 나누기

1. 여러분들은 세상의 지도자들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것은 바로 기도해야 할 제목입니다. 서로 나누어 보시고 정부와 사회를 위하여 중보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2. 여성이 교회의 지도자가 되는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도 바울의 교훈을 오늘날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서로 나누어 보십시오.

-
3. 이 시간에 지도자에 대한 정의를 서로 내려 보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성경에서 전반적으로 말하는 지도자는 어떤 모습인지도 나누어 보십시오.

제 3 과: 디모데전서(3)

하나님의 권속을 향한 교회에 관한 교훈

찬 송 / 245장
읽을 말씀 / 4, 5장
공부할 말씀 / 4:1-5:25

먼저 읽기

조지 워싱턴 피달스 대령은 파나마 운하를 건설하면서 지리와 기후와 같은 여러 가지 환경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남의 일에 참견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의 시끄러운 비난과도 맞서 싸워야 했습니다. 그들은 제각기 떠들기를, 피달스 대령이 이 엄청난 공사를 종결짓지 못할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비난에도 불구하고 이 단호한 건축가는 소신있게 자신의 일을 추진해 가면서 못 사람들의 비난에는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째서 대령님은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까?"

부하 중 한사람이 물었습니다.

"때가 되면 한다"

"어떻게 말입니까?"

이 위대한 기술자는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운하로!”

마태복음 7장20절에서는 참신자는 열매를 통해 알게 된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단(異端)은 한자에서 보여지듯이 끝이(端) 다름(異)을 말합니다. 그들의 가르침은 우리와 매우 흡사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고백함도 동일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에 그들은 우리와 차이를 드러냅니다. 그들 안에는 진정한 복음이 없습니다. 드러나지는 않지만 교회 안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다르게 말하고, 교회를 미혹하는 이들이 분명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예로 들며 우리에게 교훈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번과를 공부하며 거짓 가르침에 대한 판단의 준거들이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함께 본문 생각하기

바울은 예배와 지도자의 자질(2:1-3:16)에 대해 글을 쓴 뒤, 이제는 디모데 개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일꾼이 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부분은 디모데가 취할 행동과 반대자들의 행동을 대조적으로 표현했다는 점에서 다음달에 살펴볼 디모데후서와 비슷합니다.

[4장 1절에서 5절] 외식에 대한 교훈

사도 바울은 4장 1절에서 반대자들의 행동에 대해 말하면서 “후일에”라고 말함으로써, 종말에 있을 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에서도 종말에 사람들이 어떤 태도와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를 언급하고 있으나(딤후3:1-5, 4:3) 전서에서는 후서보다 더 강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1. 사도 바울은 거짓 교사들이 왜 생긴다고 했습니까?

① 1절 -

② 2절 -

2. 이들은 어떻게 가르치는 자들입니까?

① 3절 -

[4장 6절에서 10절] 경건의 연습에 관한 교훈

사도 바울은 '육체의 연습'과 '경건의 연습'을 대조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연습"이란 육체적 금욕주의를 말합니다. 바울은 이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3. 바울은 세상의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 대신 무엇에 힘쓰라고 합니까? 그리고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① 7절 -

② 8절 -

[4장 11절에서 16절] 디모데에게 주는 교훈

4. 바울이 11절에서 디모데에게 명하고 가르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① 10절 -

5. 바울은 디모데의 연소함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지라고 합니까?

① 12절 -

[5장 1절에서 16절] 남편 없는 여성들에 대한 교훈

사도행전 6:1-3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매일 과부를 구제하는 일에 대한 기록이 나오는데 여기서도 누가 도움을 받아야 하는가에 대해 분쟁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디모데 전서에서도 같은 문제가 나타납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먼저 일반적인 문제를 말하고(5:1-2), 이어서 구체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5:3-16).

6. 바울이 디모데에게 여러 연령층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하라고 말합니까?

① 1, 2절 -

7. 바울은 교회가 도와야 할 과부의 기준과 조치에 관해 어떻게 교훈하고 있습니까?

① 기준(5, 9, 10절) -

함께 생각하며 나누기

1. 여러분은 거짓 교사와 참된 교사를 어떻게 구별하시는지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짓 교사와 참된 교사가 각각 미치는 영향이 어떤 것인지도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2.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경건의 연습이 무엇인지 나누어 보십시오. 그리고 참된 경건이란 도대체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 나누어 보십시오.
3. 여러분들의 주위에는 남편이 없는 이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의 어려움은 어떤 것일까요?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물론 여기서는 남편과 사별한 경우를 말하지만 이혼한 경우도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제 4 과: 디모데전서(4)

하나님의 권속을 향한 부와 사회적 지위에 관한 교훈

찬 송 / 330장
읽을 말씀 / 6장
공부할 말씀 / 6:1-21

먼저 읽기

가치관의 문제는 동일한 것을 바라보거나 행하는 사람에게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오게 할 수 있습니다. 십만원 짜리 수표를 사용해보지 못한 초등학생에게 십만원이라는 돈은 그저 종이에 불과 한 것처럼, 내가 어디에 가치를 두고 있는가, 혹은 그것의 참된 가치를 아는가 하는 문제는 우리의 삶을 좌우할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에는 우리의 가치가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들에 관해 여러 모양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가치관의 차이는 시각과 관점의 차이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식당에 갔습니다. 종업원이 바빠서 내가 직접 물을 떠가지고 자리로 오는네 다른 테이블에서 물 한잔만 가져다 달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내친김에 물 한

잔을 가져다주었습니다. 그럴 때에 나는 그 사람을 위해 봉사한 것이지만 나를 종업원으로 오인한 그 사람은 너무나 당연한 대접을 받은 것으로 생각할 것입니다.

다양한 가치관과 관점 속에서 오늘 본문은 오로지 단 한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든 상황에 적용이 되며 우리로 참된 평안에 거하게 하고, 최고의 복을 누리게 하는 인식의 전환점을 제시합니다.

함께 본문 생각하기

디모데 전서의 마지막 부분인 오늘 본문에서는 앞서 이 편지에 나타났던 여러 가지 독특한 면들이 혼합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6장 1절에서 2절] 진정한 섬김에 대한 교훈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내용 중에는 이상적인 평등사회를 가르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종이나 자유자나 구별이 없다는 말입니다(골3:11). 그러나 현실적인 생활에서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공경하고 순종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6:1). 이처럼 이상과 현실에 대한 두 가지 가르침은 서로 상반된 것처럼 보여서, 사람들이 의혹을 품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이처럼 언급하는 이유는 현존하는 체제 아래서 믿는 자들이 나아갈 길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을 그의 역설적인 표현에서 알 수 있습니다.

1. 당시 종은 상전에게 어떻게 행해야 했습니까?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1절a -
 - ② 이유(1절b) -

-
2. 사도 바울은 주인과 종을 주종의 관계로 보지 않고 어떤 관계로 보고 있습니까?

① 2절 -

[6장 3절에서 10절] 이단과 돈에 대한 교훈

바울은 거짓 교사들에 대한 반박을 하면서, 그들의 여러 가지 행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3. 거짓 교사들의 문제점은 무엇이며 특히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① 문제점(4,5절) -

② 이익의 재료 -

4. 물질에 대한 바른 태도는 무엇입니까?

① 6절 -

5. 지족하는 마음이란 어떤 뜻입니까?

① 7,8절 -

[6장 17절에서 19절] 부자의 역할에 대한 교훈

흔히 사람들은 초대 교회의 성도들은 주로 가난한 자들과 종들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는 너무 과장된 표현이며, 바울이 세운 교회에는 처음부터 부유한 자도 포함되어있었습니다. 이들 중에는 교회의 재정을 돕고, 또 성도를 섬기는 자들도 있었습니다(고전16:15-18). 따라서 바울은 부유한 자들에게 그들의 부로 말미암아 닥치게 될 특별한 위험- 부가 그들에게 권세를 주고 그들의 안전을 보증할 것이라는 생각-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6. 지족하는 마음이 없이 부하려 할 때 어떤 위험이 있습니까?

- ① 9절 -
- ② 10절 -

7. 부자들이 기억하여 행할 것은 무엇이며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17-19절)

- ① 17절a -
- ② 17절b -
- ③ 18절 -
- ④ 결과(19절) -

[6장 11절에서 16절, 20절에서 21절] 디모데에게 주는 명령

8.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피할 것과 좇을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무엇 무엇입니까?

- ① 피할 것(10, 20절) -
- ② 좇을 것(11절) -

함께 생각하며 나누기

1. 진정한 섬김이란 무엇입니까? 특별히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 섬김이란 각각 어떻게 하는 것을 말할까요?
2. 우리가 늘 사용하는 돈의 기능과 영향력에 대해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돈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입장을 나누어 보십시오.
3. 부자들에 대한 경고가 가장 많이 등장하는 성경이 누가복음입니다. 재물에 대한 부자들의 생각은 어떠한지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참된 부자란 어떤 의미인지 말해보시기 바랍니다.

남성도구역예배공과

구역예배순서

찬 송		다같이
성경봉독		인도자와 교독
구역공과		인도자
기 도		인도자
주기도문		다같이

- ▶ 구역예배 소요시간은 최소한 40분 정도가 필요합니다. 인도자의 지도에 따라서 최선을 다할 때 은혜가 넘치는 구역예배가 될 것입니다.

제 27 과

믿 음

찬 송 / 397장
읽을 말씀 / 시 131:1-3
외울 말씀 / 요 1:12

성경은 믿음의 삶과 관계 있는 말씀으로 가득차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도의 삶은 달리 표현하면 믿음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있는 믿음과 관련된 모든 구절을 살펴보고자 한다면 그것은 단시간에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다음에 제시되어 있는 말씀은 요한복음에 나타나 있는 말씀들입니다. 이 말씀들을 읽고 함께 생각해 봅시다.

요 1:12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 3:16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 5:24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 7:38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요 11:25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요 11:26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요 14:12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1.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을 수 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통해 가능합니까?(요1:12)
2. 당신은 죄로 말미암아 멸망할 수 밖에 없는 존재였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그러나 이제 당신은 영생을 소유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통해 가능해 졌습니까?(요3:16)

3. 마음에 가득한 악으로 인해서 악을 토해내며 살 수 밖에 없었던 존재들이 이제는 변화된 삶을 통해서 생수의 강을 그의 삶을 통하여 흘러보내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통하여 가능한 일입니까?(요7:38)

4. 죽기를 무서워하여 종노릇 할 수 밖에 없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죽어도 사는 소망을 가집니다. 더 나아가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통해 되어진 일입니까? (요11:25)

5. 도덕과 윤리와 율법에 합당하게 보이지만 무거운 요구를 받으면서도 그것을 할 수 없는 무기력으로 인해 좌절할 수 밖에 없는 무기력한 삶을 살아갈 수 밖에 없었지만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통해서 가능해지게 되었습니까? (요14:12)

너무도 답이 분명하게 보이는 질문들과 같이 보입니다. 하지만 당연하게 보이는 답이라고 해서 덜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참으로 우리의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들을 결정짓는 답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답의 중심에는 누가 계시니까? 한 인격에 대해서 초점을 맞출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시 131:1-3을 함께 읽어 봅시다.

시 131:1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큰 일
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시 131:2 실로 내가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온케 하기를 젖 떼 아이가 그 어머니 품
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중심이 젖 떼 아이와 같도다

시 131:3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6. 시131편을 지은 저자는 이스라엘의 왕 다윗입니다. 그는 한 나라의 왕이며 대단히 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쓰임 받았던 인물입니다. 그와 같은 다윗이 가장 바랐던 심령의 상태는 무엇입니까?(시 131:2) 그리고 시131편 전체를 통해서, 특히 시131:2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믿음의 삶의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7. 우리의 삶을 돌아봅시다. 시편 기자는 자신의 마음이 교만치 않고 자신은 눈이 높지 않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충성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것을 추구해가는 당신의 심령의 상태는 어떠합니까? 격동의 세월을 살아가고 있는 다윗이지만 그가 바라고 있는, 그리고 누리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의뢰의 기쁨이 있는지요.

다음의 말씀을 읽어봅시다.

마 7:24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마 7:25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
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약 2:17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약 2:18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네게 보이리라

8. 믿음의 삶은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의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의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과 분리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당신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믿음의 삶을 살고 있다고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하시는 말씀을 잘 듣는 삶을 사시는지요? 또한 주님이 말씀하셨지만 순종하고 있지 않는 것은 없는지요?

9.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새롭게 결단한 것과 각자의 기도제목을 나누십시오.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MEM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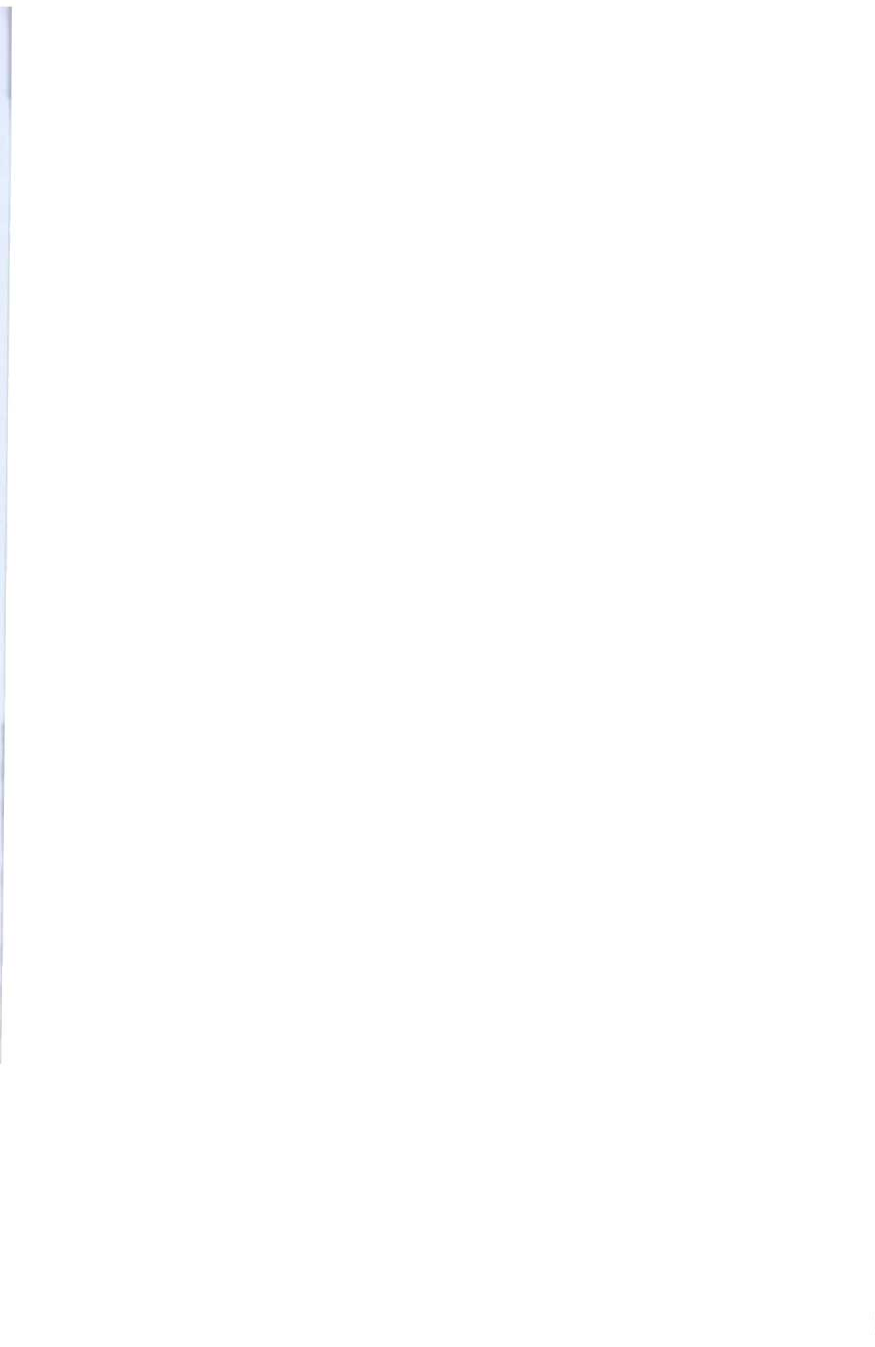
MEMO

1

MEMO

17/17

MEMO



가정예배 안내

예배순서

찬 송	다 같이
성경봉독	사회자
메시지 낭독	
기 도	다 같이
주 기도	다 같이

• 예배 소요시간

약 15분 내외가 적합

• 예배 사회자

가장 또는 가족이 돌아가면서 순번제로 인도

• 찬송과 성경 본문

가정예배 안내서의 해당 일자에 소개된

찬송을 부르고, 성경 본문을 봉독